

<한

서울 관악구 봉천3동 산81과 봉천6동 산89 일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오복세탁소행 마을버스를 타고 가파른 시멘트 비탈길을 오르면 '마지막 달 동네'에 다다른다.

20여년 전 동부이촌동 수재민들을 시에서 쓰레기 수거차에 실어다 이곳에 부려놓았다. 이들은 땅 8평씩에 직접 판자와 벽돌로 집을 지어 동네를 이루었고 현재 8평을 다시 셋으로 쪼개 1천5백여가구 8천3백여명이 밀집해 살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붉은 벽돌로 지어준 2개의 수세식 공동화장실이 이 동네의 가장 돋보이는 건물이다.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미취학아동은 1천5백~2천명인데 비해 탁아소나 유아원은 4곳으로 그나마 수용인원은 통틀어 1백명 미만이다.

이번에 화재 참변을 당한 망원동 맛벌이부부와 같은 경비원 아버지과 파출부어머니는 이 동네 가정의 전형이다.

"그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동네에도 그렇게 키운 아이가 있었거든요. 세살배기 재영이란 아이였는데 1년 동안 방안에 갇혀 혼자 지내던 아이를 엄마가 맡기려 왔었지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말도 못하고 성격이 침울해서 한참 동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지요."

이 동네 하나뿐인 가정탁아시설인 '한우리탁아소' 이흥수(29)씨는 일 다니는 엄마치고 재영이 엄마처럼 해볼 생각 안해본 사람이 드물다고 말한다.

3년 전 결혼비용을 털어 8평짜리 터 2개를 사서 탁아일을 시작한 이씨는 "탁아소 그거 북한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던 동사무소 직원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출퇴근 시각이 불규칙하고 야근·철야까지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비공식부문 종사 주부들에게 탁아는 '돈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울고 아이를 달래자니 살림이 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만 해도 탁아시설은 시립탁아원 1백40개, 지역사회탁아연합회에 가입해 있는 25개, 종교단체 운영 15개 등으로 크게 부족하고 그나마 영아를 맡아주는 곳은 드물다.

"집이 좁아서 15명밖에 받지 못해요. 노점상 나가는 젊은 엄마가 핏덩이를 안고 와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종종 있지만 손이 있어가지요. 탁아시간이 지났는데 엄마가 철야를 하게 되자 수급사원인 아빠가 오토바이에 아이를 싣고 밤길을 다닌 적도 있어요."

파출부 엄마도 들볶아낙도

도시·농촌 탁아실태

지난 88년 4월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에서 운전사인 아버지와 파출부인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 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 소영(4), 세라(3), 보라(3) 세 자매가 방에서 나오지 못해 불타 죽었다. 지난 9월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가 맛벌이 나간 사이 잠가둔 문을 열지 못해 두 어린이가 질식사해 숨졌다.

88년 5월에는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대관리에서 3살, 2살 어린이가 수로에 빠져 죽었고 그해 8월말에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서 6살, 4살 어린이가 수로에 맛벌이부부가 늘어나고 농촌에서 어린이 양육을 가정에만 맡긴다. 정처·이익집단들이 자기 사고가 났을 때만 잠시 들먹여 사회에서 탁아문제가 가장 절

이 동네에서도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는 형편이 좋은 경우다.

고정수입이 없는 집에서는 한 달에 3만원인 탁아비가 무서워 찻먹이 때는 시골 할머니댁이나 친척집을 전전시키다 말귀라도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데려오는 것이 보통이다. 둘을 보낼테니 깎아달라는 엄마들도 많다.

최근에는 70~80%가 보증금 50

말한다.

"일년이면 2백50~3백명쯤 미아찾기 방송을 합니다. 자정이 넘도록 찾지 못한 부모들이 울면서 방송을 해달라고 해 난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동네와 함께 세워진 구세군교회의 사관 배동운씨는 몇년 묵은 미아명부를 들춰 보이며 이 동네 아이들의 출석부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고 말한다.

"빨간 줄무늬 윗도리와 회색 바지처럼 여섯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보신 분은..."

늘어나는 미아찾기 방송을 들으며 봄을 실감한다는 동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코딱지 만한' 방안에 갇혀 지내던 아이들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고, 저녁 늦게야 일터에서 돌아와 없어진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이 허둥거리며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찾아질 것이라고 한다.

<김경애 기자>

서울 봉천동 달동네

돈벌자니 애가 울고...시골 친척집에 맡겨 미아찾기방송 1년 3백건...봄이면 더 심해

만원에 5만원씩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인 이 무허가촌에도 임대료 인상바람이 불어닥쳐 탁아비로 오른 월세를 내야 할 집도 있다.

"나는요 비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낮에도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줘서요." 공사판 막일이나 노점상하는 부모가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여섯살 난 동혁이에게는 '운 좋은 날'인 셈이다.

"아이가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는데 어디 일이 손에 잡혀가지요.

그래서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보세웨터를 맡아다 짜고 있어요." 다섯살 난 준희 엄마처럼 아이들 노는 모습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수입이 나은 파출부나 공장일 대신 가내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어릴 땐 잃어버릴까 걱정이었다가 조금만 크면 가출해버리거나 나쁜 길로 빠질까봐 조마조마하지요." 통장 아주머니는 이 동네 고교진학률이 절반도 안된다고



해뜰 녘 일 나간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산동네. 정도가 웅기증기 모여 있지만 그냥 버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다.

탁아소 없나요

현장을 알아본다

있었다.
들의 농사 참여가 늘어남에
는 없는 상황이 보편화되고
기에만 급급해 탁아문제는
다 다시 잊혀져버린다. 우리
저소득층과 농촌의 실상을
를 살펴본다. <편집자>

들판이 다 놀이던데 탁아소는
는 탁아소냐.” “애 업고 점심
는 농촌 아낙의 모습은 한쪽
그림과 같다.”

로에 빠져 죽고, 버려진 농
를 가지고 놀다 마시고 죽고,
기계에 팔다리가 잘리고, 독
기 물려 죽는 등 농촌에서 흔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사고 애
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배양2
김난희(29)씨의 딸 해남(2)이
일년 열두달 기침과 콧물을
고 산다. 엄마 등에 업혀 고추,
감, 파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를
가거리면서 심한 기온차를 이
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올엔 폐렴에 걸려 병원 신세가
졌다.

배양사와 발농사 외에 돼지 70

마리를 기르는 이태수(36)씨의
아들 성은(4)이는 돼지 똥통에
빠져 똥물에 뒤범벅이 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밭두렁에서 똥구멍에 똥을 낀
채 잠들어 있는 놈을 어둑해져서
야 깨워 들쳐업고 울면서 집으로
내달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요.
똥 닦아줄 새도 없으니까요. 이
웃집 미선네는 배밭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 치다가 뱀이
애가 누워 있는 데로 슬슬 기어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뛰어내렸
는지도 모르게 뛰어내려가 얼른
감싸안고 영영 울었다더군요.”

며칠 전에는 마을 앞에 쌓아둔
석회비료 더미 위에서 놀던 윤희



얼마 전 비료더미 위에서 떨어져 턱뼈를 부러뜨렸던 윤희는
친구들이 아무리 줄라도 비료포대 위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언뜻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농촌아이들의 놀이풍경
뒤에는 농약병, 수로, 독충들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병을 잘 치웠을까 하는 조바심에
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탁아
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탁아시설은 1개면마다 1개

나가는 엄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이들은 이젠 일터에 엄마
를 따라갈 수도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린이 비닐하우스
일을 하는 이웃 별레면 덕송리,
화점리에서 지난해 11월 한달간
열렸던 ‘농번기탁아소’에는 7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몰려들어 혼잡
을 이루었다.

경기 남양주 배양리

“들판이 놀이터” 옛말 농약병이 장난감 농민들 농번기탁아소 있는지도 잘몰라

(6)가 떨어져 턱뼈를 부러뜨렸다.

농약병을 가지고 놀다가 영문
도 모르고 엉덩짝을 불이 나게
두들겨 맞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농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애 업고 취재하러 다니는 기
자 봤습니까? 공장에 애 데리고
가 뉘어 놓고 일하는 사람 봤습
니까? 도시에서는 애는 일터에
안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는 애를 받
에 뉘어 두거나 업고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여성 농
민들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
인다.

논농사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
도 힘든 요즘은 옛날의 농번기,
농한기의 개념도 없어져 사철
계속 비닐하우스 농사, 가축기르
기로 바쁜 이들은 혹시 아이가
수로에 빠지거나 앉았을까, 농약

부락에 봄, 가을로 한달씩 열리
는 ‘농번기탁아소’가 고작이다. 1
개면에 30~40여개의 부락이 있
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부족
한 숫자다. 그것도 제대로 홍보
가 안돼 89년 농촌지역탁아대책
위원회(회장 엄영애)가 전국 7개
도 17개 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가 농번기탁
아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탁아소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은 10년 전과 똑같은 보조수고비
10만원, 장난감 구입비 20만원이
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농민
들에게 이같은 예산이 있다는 사
실을 알리지도 않고 써버리는 경
우까지 있는 형편이다. 이 마을
에도 겨울철에는 비닐하우스 일
을 하지 않으면 부근에 있는 양
초공장, 속옷공장, 제지공장 등에

‘농번기 탁아소’ 운영을 맡았던
별레면의 주순자씨는 “엄마들이
비닐하우스나 공장일을 사시사철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편에
서 한달 탁아소 운영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상설탁아소가 시
급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올봄 탁아소 운영여부를 남양주
군청에 문의한 결과 “올해는 예
산이 안 잡혀 있어서 추가경정예
산으로 가을에나 한 번 열 수 있
을 것 같다”는 답변만을 얻어낸
이들은 다들 우울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 애들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도 결국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아이들까지 죽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창희(6), 미미(3) 두
남매를 둔 이순실(30)씨의 말이다.
<남양주군=김미경 기자>



아이들. 4평짜리 방에 15명
둘에 비해 행복한 편에 속한